

# “포교는 불교의 미래...군포교에 더 큰 관심을”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훈련소에서 먹은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불자가 됐습니다.”

프로야구 인기스타 서재용의 고백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에기로 시작해 군대에기로 끝난다는 말도 있다. 젊은 시절 군에서 접하는 모든 상황들이 인생에 중요한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사람이 훈련소에서 만나는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잠시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혹은 초코파이와 맛난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 정도일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훈련소나 부대에서 불교와 인연 맺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군포교가 중요한 것은, 군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인생에서 육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면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군포교 최전방에 군법사가 있고 그들은 조계종 특별교구인 군종교구에 속해 있다. 군종교구를 총괄하는 군종교구장은 일면 스님이다. 군포교를 위해서라면 밤과 낮,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뛰어 가는 일면 스님이 군종교구장에 취임한지도 2년이 흘렀다. 11월 29일 열리는 제39주년 군종의 날 기념법회 준비로 분주한 일면 스님을 만났다.

-군승활동이 내년이면 40년을 맞습니다. 현재 군승의 활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군승 활동은 1968년 5명의 군법사를 파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137명의 군법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육군 97명, 해군 18명, 공군 22명인데, 좀 부족한 수치입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전체 장병 수와 불자 수를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 아니지만 육군의 경우 많이 부족합니다. 400개가 넘는 법당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죠. 200명 정도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군 전체에서 불자의 비율이 높아져야 군승 정원도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의 포교활동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군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군법사는 군인이기도 하고 승려이기도 합니다.

-군종교구가 출범하고 초대 교구장에 취임하신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가 많았지만 특히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교구장 개인이 한 일이라 이리저리 뛰어 다닌 것 밖에 없지만, 군종교구가 설치되고 많은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군법사들의 활동과 군포교의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계한 장병 수가 작년에 비해 4만 명 증가했습니다.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군사학 건립과 쾌적한 종교 환경 조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간 개별적인 원력으로 진행되어 온 군포교 활동들을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전환시켜 체계

심을 가져야 합니다. 군에서는 수 백 명 수 천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불교에 귀의시킬 수 있으니까요.  
-군법사가 아닌 스님이나 포교사가 특정 군부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법회를 주관하고 장병들과 교류할 수 있는 ‘민간인 성직자제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참여하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종교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았 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스님은 군법당을 아주 열심히 돌봐주고 있습니다. 포병 6여단 법당사 호백 스님은 700여 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위문과 법회를 하며 불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또 57기갑 철갑사 혁명 스님과 102여단 일출사 백계 스님, 과학화훈련단 호국응봉사 수진 스님도 정기적으로 군법당을 관리하며 탁월한 ‘숨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종교구에서는 현재 스님과 포교사들의 정기적인 군포교 활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군법당의 주지나 포교사로 공식 임명할 계획입니다.  
-군종교구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군포교 현황을 들여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도 교구장을 맡고 있는 동안은 눈산훈련소에 대형 법당을 건립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최소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법당이 필요합니다. 몇 년 후부터는 군의 모든 훈련소가 눈산으로 통합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대형 법당을 꼭 필요하지요. 이미 가톨릭계에서는 대형 성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용지가 충분하니 불교계도 원력을 모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군내의 불자 수가 많아야 군법사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훈련소에서의 포교는 군내 불교활동의 근간이 됩니다. 훈련소에서 선택한 종교가 평생의 종교가 되고 그로부터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불자들이 인식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 수계 장병 1년새 4만명 증가·군포교 체계적 틀 마련 ‘성과’ 눈산 훈련소에 5천여명 수용 가능한 대형법당 건립 ‘목표’

수행과 전법의 사명과 국방의 사명을 동시에 짊어진 신분이요. 군에서는 정선전력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장병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군법사는 장병들의 인격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서 각종 법회, 위문활동과 선도 활동, 군사학 건립, 각종 의식진행, 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군법사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나요?  
포교에 대한 원력과 신념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군법사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기는 힘듭니다. 군인과 성직자를 결하는 신분이 갖는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군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종단 지원이 있어야 하고 전역 후 신분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복무기간 단축 등 정부차원의 정책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군종교구에서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재정문제입니다. 재원의 뒷받침 없이는 군포교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종교구 출범 직후부터 ‘만인동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8억여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군법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군종교구를 꾸러가기에는 예산 부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문제는 ‘급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입니다. 군포교의 중요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포교일 뿐입니다. 대상이 장병들이고 공간이 군대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모든 스님이나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교원력으로 군포교를 바라본다면 어려운 것도 꺼릴 것 없습니.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는 생각이 있다면 군포교 현장에 관

글=임연태 부국장 · 사진=박재현 기자



###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갓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보석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처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산 분, 사업을 하고 계산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산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에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백수정108염주의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집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 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반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다쳐를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의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은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은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다쳐를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세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풀워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